

환례를 그린 크리스판·드·파스의 版畵 (1599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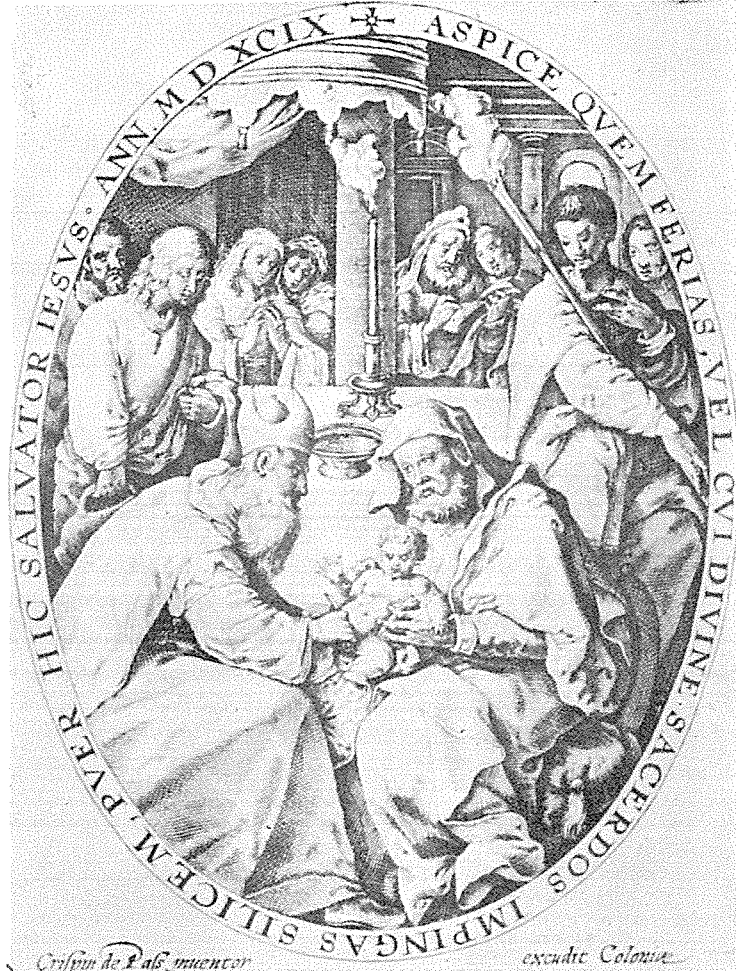
유대인은 기원전 4세기 그 능숙=妙手 리스 학문의 일대 중심지였던 으로 그말에 알렉 산드리아에 모인 다수인 은 齒科에 종이나 국민속에 섞여서 살고 타병과 동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식이요 卹는 것이라 법이나 마사아지, 약물 나아가 서는 해부학이나 생리학의 지 대를 만들어 식도 배웠다. 치아를 주

사체는 부정한 것으로서 피 것을 볼 수 했지만 유대인들은 때로 인체 해부학을 하였다고 한다. 財團(런던)

이 그림은 할례를 그린 크 리스판·드·파스의 판화 (1599년), 할례는 의학적이라기 보 다는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유대인의 의식이였다.

그러나 일부에서는 이것을 위생적인 수단으로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다.

- 필라델피아 미술관  
컬렉션 -



本 美術作品을 통하여본 齒科醫學은 1975年 10月号 부터 掲載을 始作하여 한 회도 거른적이 없이 現在에 이어지고 있으며, 이 貴重한 資料와 玉稿를 每月 寄稿하여 주시는 金圭炆博士 (서울 금성치과의원 원장, 前 齒協 初代(保險理事)의 執念과 努力에 깊은 感謝를 드리는 바이다. (編輯子 註)

# 세창치과기공소

752-5970, 778-8687

서울용산구 도동 1가 19-18 (금정빌딩 302)  
대표 권혁문